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나눔자판기, Swap-o-Matic



소비자들이 쉽게 물건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자판기가 있다. 재활용이나 재사용하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게 하는 자판기이다. 사회적 참여와 나눔을 유도하는 새로운 가치의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외관이 독특하다.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디스플레이같지만,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을 보면 신상품이라 보이지 않는 친근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얼핏 보면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남들이 훗날 다 들여다 볼수 있도록 유리로 만든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Swap-o-Matic은 일명 '기부 자판기'다. Swap-o-Matic은 무의식적인 소비를 지속가능한 삶의 영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Swap-o-Matic은 크게 기부(Donate), 받기(Receive), 교환(Swap)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사용자는 Swap-o-Matic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계정을 설정한다. 간단한 절차로 계정을 만든 뒤 사용자는 정해진 공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간단히 실행하면 된다.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기증하거나, 기증되어 있는 물건이 필요할 경우 받을 수도 있다. 기부한 사람(Donator)에게는 1credit이 주어지며, 물건

을 가져가는 사람(Receiver)은 1credit의 비용을 지출하는 단순한 구조로 기부 활동이 이루어진다.

Swap-o-Matic은 오프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자판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기부와 더불어 물물교환이라는 원초적 나눔 방식의 활용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잊혀져가는 나눔의 가치를 몸소 느끼게 한다. 물물교환이라는 나눔 방식이 자판기라는 매체와 기부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아날로그적 감성에 호소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Swap-o-Matic은 '공생'과 '휴머니티', 이 두가지 기부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현재 이 제품은 뉴욕의 디자인 갤러리와 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상점에 배치되어 있다.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자판기가 설치된 위치와 안에 있는 제품들을 볼 수 있다.

미국 인구는 세계 6%에 불과하지만, 소비하는 자원은 세계자원의 60%에 이른다고 한다. 이 자판기를 만든 '리나 페네 퀴토씨'는 Swap-o-Matic이 무의식적 소비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녀는 "미국 소비자들이 재사용과 재활용이 뭔가 새로운 것을 사는 것만큼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자원 과소비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